

# 景晦 金永根 한시의 전원인식

— 전원을 표현한 詩語 사용을 중심으로 —

황민선\*

|| 차례 ||

- I. 머리말
- II. 景晦 金永根의 한시와 전원을 표현한 시어
- III. 전원을 표현한 시어를 중심으로 본 전원인식
- IV. 맺음말

## 【국문초록】

한시에서 전원은 대체로 자연에 순응하는 인간의 삶이 영위되는 공간으로, 작자의 상황, 심경에 따라 전원적 흥취유발의 공간으로, 은거의 공간으로 또는 노동의 공간 등으로 표현된다. 이런 전원의 모습은 작자의 심경에 영향을 주는 시대적, 사회적, 개인적 상황에 의해 변주된다. 일제강점기의 유학자로 평생을 강진에서 살았던 景晦 金永根의 한시에 서도 이런 면이 보인다. 그는 무장독립투쟁을 꿈꾸었으나 좌절된 위정척사의 학자로, 입신을 포기하고 전원을 선택한 가난한 선비로 평생을 보냈고, 1,000여 편이 되는 한시는 이 때문에 다수가 전원을 배경으로 한다. 본고는 이에 주목하여 경회 한시에서 나타나는 전원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전원을 표현한 시어를 사용한 한시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본고는 경회 한시에서 전원시들을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전원을 표현한 시어를 사용한 한시를 중심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 경회 한시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경회 한시의 전원인식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초 향촌에서 살았던 유학자들의 삶과 그들이 삶의 공간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 전남대학교 국어문학과 박사수료

주제어 : 한시, 경희 김영근, 전원인식, 향촌, 한말, 일제강점기

## I. 머리말

한시에 있어서 田園은 자연의 범주 안에는 있으나, 대자연 안에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소박한 인간의 생활공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전원은 농사의 풍요, 한적한 농가의 모습에서 유발되는 흥취의 배경이 되거나, 입신이 좌절된 선비의 차선인 은거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그곳에서 행해지는 노동을 꺾진하게 그려내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렇게 한시에 표현된 전원 공간은 입신이 좌절된 요인, 번다한 세속으로 대변되는 현실문제의 심각성, 작시자의 사회적 위치 등과 같은 상황들로 인해 변주된다. 이렇게 외부적 상황에 따라 한시에 그려지는 전원 모습의 변주는 시대에 따라 당대 유자들에게 전원이 어떤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외부적 상황은 주로 당대의 사회적 현실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景晦 金永根(1865~1934)은 평생을 강진에서 한말과 일제강점기의 어수선한 시대를 살아가야만 했던 조선후기 유학자였다. 그는 14세 때는 淸南 金漢燮의 밑에서 17세 이후에는 重菴 金平默 아래서 수학하였다. 오남과 중암은 모두 과거에 나아가지 않고 제야에서 학문을 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던 한말의 名儒였다. 이런 스승들의 뒤를 따라 경희 역시 과업을 그만두고 강진에서 학문에 열중하며, 전원의 삶을 선택했다. 그러나 한말과 일제강점기의 현실은 전원에서의 은거를 지속할 수 없도록 하였다. 위정척사파로서 우국정신이 강했던 그는 1915년 자신이 무장독립투쟁을 할 것을

설득하여 연해주로 떠났던 柳麟錫과 함께하기 위해 간도로 떠났고, 이 때 경험은 『遠遊日錄』에 일기와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독립운동을 위한 간도행은 결국 柳麟錫의 죽음과 경희의 병환으로 실패하고 다시 향촌으로 돌아와 전원생활을 해야 했다.

이런 경희의 삶은 그의 한시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의 한시는 원본이 6.25때 유실되어 제자들이 편지에 따라 시문을 발췌한 필사본들을 모아 현재 영인되었기 때문에 그의 시문학 전반을 현재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영인되어 번역된 시를 중심으로 보면 대략 1,000여 편에 달한다. 평생 전원에서의 삶을 선택한 까닭으로 그의 한시는 대체로 전원을 배경으로 한 시들이 많은 편이다. 그리고 이런 전원을 배경으로 한 시들의 내용 또한 풍경, 노동, 은거생활, 그리고 생활 깊숙이 침투해버린 서학과 일제의 횡포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런 시들은 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견뎌내야 했던 당대 유자들, 특히 서울이 아닌 향촌에서의 유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그들에게 전원으로 형상화된 향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경희 김영근에 대한 연구는 1983년 최신희의 『景晦의 詩世界 — 斥邪衛正의 側面에서』<sup>1)</sup>와 박민영, 『호남유생 景晦 金永根의 화서학과 학통과 항일 시국관』<sup>2)</sup> 정도이다. 최신희는 경희의 후손인 金炳國에게 필사본들을 받아 처음 경희의 유작을 세상에 소개하는 한편, 위정척사의 측면에서 경희의 우국시를 분석하였고, 박민영은 경희의 학맥에 따른 항일운동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1) 최신희, 『景晦의 詩世界 — 斥邪衛正의 側面에서』, 『성심어문논집』7권, 성심어문학회, 1983.

2) 박민영, 『호남유생 景晦 金永根의 화서학과 학통과 항일 시국관』, 『의암학연구』 11호, 의암학회, 2014.

1,000편 가량 되는 분량과 당대를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희의 한시는 20세기 초 한시사의 중요한 자료로써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경희 한시에서 다수 보이는 전원을 배경으로 한 시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경희의 전원시를 모두 살피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경희의 한시는 1,000편 가량 되는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선 전원을 표현한 시어를 사용한 한시에서 그려진 전원의 모습을 파악하여 경희의 전원인식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고에서는 1987년에 영인하여 간행한 『경희집』과 이 영인본을 저본으로 하되 중복된 시문을 간추려내어 2010년에 간행된 『국역 경희집』에 있는 시들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렇게 전원을 표현한 시어를 중심으로 경희 한시에서 전원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희의 전원이 어떤 공간양상을 보이는 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 II. 景晦 金永根의 한시와 전원을 표현한 시어

景晦 金永根의 저작인 『景晦集』은 현재 1987년 아세아문화사에서 간행한 영인본 『경희집』<sup>3)</sup>과 2010년에 이 영인본을 저본으로 한 『국역 景晦集』<sup>4)</sup> 두 권으로 확인 할 수 있다. 『景晦集』은 영인본의 발간사와 최신희의 「景晦의 詩世界 — 斥邪衛正의 側面에서」<sup>5)</sup>에 따르면 원본은 6.25에 망실되었고, 다만 그의 제자들이 원본을 편의에 따라 간략하게 편집해 놓

3) 『경희집』, 아세아문화사, 1987.

4) 이백순, 최한선 역, 『국역 경희집』, 강진군, 2010.

5) 최신희, 「景晦의 詩世界 — 斥邪衛正의 側面에서」, 『성심어문논집』7권, 성심어문학회, 1983.

있던 필사본들만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영인본 『경회집』에 실린 최신희의 『景晦의 生涯와 詩世界』에서 파악한 필사본의 상황을 보면 『景晦堂本稿』, 『景晦先生遺集』, 『景晦先生遺集略選』, 『景晦遺稿』, 『景晦詩集七律選』, 『景晦集』, 『景晦稿』, 『略選竹山稿』, 『竹山稿』, 『竹山稿』, 『竹山稿』, 『竹山稿』, 『竹山稿』, 『竹山稿』, 『竹山稿』, 『天台書牘』, 『天台書牘』, 『遠遊日錄』, 『理氣往復書』였고, 이 중 필사본에 수록된 시들은 모두 1,144편이었다. 그러나 이 필사본들은 원본에서 제자들이 각자의 편의에 따라 간추린 것이기 때문에 중복된 것이 매우 많은 상태였다. 따라서 『국역 경회집』에서는 중복된 부분과 경회의 저작이 아닌 것을 제외하여 번역 작업을 하였고, 이에 따라 약 955여 편의 시가 번역되었다.<sup>6)</sup>

현재 간행된 영인본과 국역본의 편제는 원본이 없이 약 19권의 필사본을 합하여 만들어서 집과 권을 편제의 단위로 하여 記, 書, 論 등과 같이 문장의 장르와 시의 형태로 시문이 정리되어 수록되는 문집의 편제를 따르지 않고 있다. 영인본의 경우는 모아놓은 필사본의 순서대로 영인이 되었고, 국역본 또한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영인본을 저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체로 그 편제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경회 한시 형태적인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경회 한시는 칠언과 오언의 절구, 율시, 고시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율시와 절구의 비중이 많

6) 위에서 인용된 1983년 최신희의 논문 「景晦의 詩世界 - 斥邪衛正의 側面에서」(『성심어문논집』7권, 성심어문학회, 1983)에서는 경회의 시가 600여 편이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영인본 『景晦集』의 해제를 대신하여 수록된 최신희의 『景晦의 生涯와 詩世界 - 斥邪衛正의 側面에서』에는 서언부분에 영인본의 저본이 되는 필사본들의 목록과 각 필사본에 수록된 시문들의 수가 조사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필사본에 수록된 시를 합하여 보면 총 1,144편이 된다. 또 영인본 『景晦集』을 저본으로 하여 정리한 『국역 경회집』에 있는 한시를 세어보면 약 955편이다. 『성심어문논집』에 실린 논문이 1983년에 쓰였고, 영인본에 수록된 논문이 1987년에 쓰인 것으로 보아 영인의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하게 조사하여 해제작성 시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은 편이다. 그 시들의 주된 내용을 거칠게 보면 주로 전원의 삶과 은거의 열망을 가진 시들과 위정척사의 정신을 이은 우국시들이 많은 편이다. 이 중 1906년 강진에서 함경도 갑산까지 여행 중에 쓴 <元山十絶>, 1915년 독립운동을 위해 북간도로 떠났을 때 쓴 일기인 『遠遊日錄』에 수록된 시, 그리고 선조 때 장흥지역의 학자인 劉好仁의 영물시를 차운한 86수 등이 특이할 만한 점이라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경희의 한시에 전원이 배경이 되는 시들이 다수 있음에 주목하여, 전원을 표현한 시어를 사용한 시들을 중심으로 하여 전원이 한시에서 어떻게 형상화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경희의 전원 인식을 엿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경희 한시에서 전원을 표현한 시어들을 선별하였다. 경희 한시에서 보이는 전원을 표현하는 시어는 ‘田園’, ‘園林’, ‘田家’, ‘農家’, ‘山村’, ‘山家’, ‘林亭’, ‘草堂’ 등이었다.<sup>7)</sup> 이에 해당하는 시들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용례	제목
농가	<稻花>, <景慕堂金安植曰珉來訪贈之以詩>
산가	<感興>, <山家書事>, <狂吟>
산촌	<山村>, <崔應珍來訪>, <雨晴>, <夜聞砧杵聲書感>, <雨後>, <細雨>, <臥病山村海南劉生玉如在玉來訪見其依舊全髮喜甚作此>, <石榴花下與客對酌以夕陽三四家分韻得四字>
원림	<病起見菜圃蘿蔔花盛開>, <送瑞夫歸觀>
임정	<次杜子美登樓韻>, <述懷>, <打麥行>
전가	<打麥行>, <田家樂>, <耘草行>, <欲雨還風繼以大風>, <依韻和崔瑞珍田家讎耕吟>

7) 시어 선택에 있어 단어가 가지는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亭, 園, 田 등과 같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한 글자로 된 시어는 피하였다. 또한 山居, 田居와 같이 공간을 뜻하는 시어가 아닌 행위에 대한 시어도 제외하였고, 각 용례가 2수 이상인 경우를 중심으로 보았다.

전원	<竹>, <自叙>, <次朴慶叔炳善靜齋韻>
초당	<寓興>, <草堂>, <寄題瑞應堂代人作>, <擬古>

모두 31편으로 5언 율시는 <臥病山村海南劉生玉如在玉來訪見其依舊全髮喜甚作此>, <擬古>이며, 5언 고시는 <送瑞夫歸觀>이다. 7언 절구는 <竹>, <病起見菜圃蘿萄花盛開>, <夜聞砧杵聲書感>, <雨後>, <細雨>이고, 7언 율시는 <自叙>, <次朴慶叔炳善靜齋韻>, <欲雨還風繼以大風>, <依韻和崔瑞珍田家穡耕吟>, <稻花>, <景慕堂金安植曰珉來訪贈之以詩>, <崔應珍來訪>, <雨晴>, <感興>, <山家書事>, <狂吟>, <寓興>, <草堂>, <寄題瑞應堂代人作>, <次杜子美登樓韻>, <述懷>이며 7언 고시는 <打麥行>, <田家樂>, <耘草行>, <石榴花下與客對酌以夕陽三四家分韻得四字>이다.

한시에서 전원을 표현하는데 자주 쓰이는 시어들로 각 시들에 쓰인 시어들의 쓰임을 보면 대체로 현재 화자가 삶을 영위하는 공간을 지칭하고 있다.<sup>8)</sup> 각 시어들은 명명하는 방법이 다를 뿐 지시하는 대상은 모두 화자가 살고 있는 공간이다. 이 중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바로 ‘산촌’과 ‘전가’이다. ‘산촌’의 경우는 山林, 세상을 벗어나있는 깊은 산속의 은거처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전가’의 경우는 농사를 통해 생업이 이루어지는 노동의 공간이라는 느낌을 가진 시어이다. 그리고 이외의 시어들도 산촌과 전가를 나눈 그 기준에 따라 분류가 된다. 산촌과 가까운 것은 山家, 林亭으로, 전가에 가까운 것은 農家, 園林, 田園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즉 경희한시에서 선택된 전원을 표현한 시어들은 종래의 전원적 흥취를 포함하

8) 그 이외의 경우는 나의 벗이 사는 공간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次朴慶叔炳善靜齋韻>, <送瑞夫歸觀>가 이에 해당된다. 이외는 모두 화자의 삶이 진행되는 공간을 지칭하고 있다.

여, 은거와 노동이라는 두 가지 이미지가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스승을 따라 과업을 통해 세상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전원에 머물고자 했던 경희의 삶과도 연결이 된다.

시에서 전원은 자연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원시성이 희석된 모습을 가진 채 서울로 대비할 수 있는 번다한 도시와 다른 교외의 농촌 공간과, 거기서 조금 더 자연에 접근하여 세속의 때가 닿지 않는 은거의 공간까지를 뜻한다. 즉 자연이되 인간이 자연의 순리(혹은 도가에서의 天理)에 순응하며 사는 소박하면서도 청담한 삶이 영위되는 공간인 것이다. 때문에 명칭은 다르지만, 지시하는 대상은 혼탁한 세상에서 벗어난 한적하면서도 순리에 맞도록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모두 같다.

그러나 위의 시들을 읽어보면 지시하는 대상은 같지만, 시에 형상화된 전원의 모습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낸다. 본고에서는 노동의 풍요, 적료하나 한적한 은거의 흥취 등과 같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전원적 흥취를 그리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혼란스러운 세속을 벗어나기 위해 은거를 시도하지만, 결국 지속되지 못하고 실패하는 공간으로 그려진 경우, 그리고 노동의 행위를 구체적이고 경험적으로 표현하며 수고로움과 도리가 공존하는 삶의 공간으로 그려진 경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 시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경희가 생각하는 전원이 무엇인지 거칠게나마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Ⅲ. 전원을 표현한 시어를 중심으로 본 전원인식

#### 1. 전원적 흥취를 유발하는 공간

앞서 살폈듯이 경희는 과업을 포기하고 향촌에서의 은거를 선택했던 당대의 유자였다. 이에 따라 그의 한시에서도 서루에 보이는 들에 자라나는 모, 진흙이 일어 객이 빠지는 콩밭, 소에 물을 먹이는 목동과 들밥을 담은 광주리를 담은 부녀의 모습을 그려내거나<sup>9)</sup>, 아이들에게 꽃과 대를 심게 하고 거문고를 타며 손님을 맞아 차를 끓이고 잉어를 내오는 한가로운 모습을 그리는<sup>10)</sup> 등과 같은 시들로 나타난다. 전원을 표현한 시어를 사용한 한시에서도 또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전원적인 흥취는 속세의 번잡함이 탈피된 한적하고 고요한 교외의 풍광, 풍요로운 논밭에서 보이는 건강한 노동의 모습이거나, 그 결과물, 그리고 산 속 깊은 곳에서 다소 적료하고 쓸쓸한 한적한 은자의 생활상 등으로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원적 흥취는 뒤에 자세히 볼 은거가 시도되는 공간이나, 수고로움과 도리가 공존하는 삶, 즉 노동이 진행되는 공간으로 표현하는 시들과는 그 쓰임이 약간 다르다. 이 두 경우의 시들은 은거나 노동의 행위가 구체적이고 경험적으로 그려져서, 적극적으로 은거와 노동의 공간으로 표현된다면, 이 장에서 은거나 노동에 대한 표현은 단지 전원을 아름답게 그리는 흥취로 멈춘다.

六月稻花滿町畦 유월 벼꽃이 논두렁에 가득하니

9) <野望>, “書樓獨倚曲欄西 野外新秧綠未齊 草路水多沾客襪 豆田泥爛沒牛蹄 牧童飲犢臨溪岸 媿婦携筐步麥畦 霽景此時無限好 半天忽見起虹霓.”

10) <遣興>, “蒔花種竹付童烏 淸晝焚香坐據梧 僮摘澗茶煎石竈 客携江鯉送山廚 閒情祇自傾醇酒 苦節須要看險途 但向詩書高著眼 百年不負聖人徒”

農家事業未全低 농가의 사업이 전혀 낮은 건 아니다.  
 彈琴蟬噪深園裏 거문고 통기니 매미는 깊은 원림서 울어대고  
 敲枕鶯啼小屋西 베개를 향해 피꼬리는 집 서편에서 운다.  
 日月當天光皎皎 해와 달은 하늘에 떠서 그 빛이 환하고  
 雲霞栖谷景悽悽 雲霞는 골짜기에 끼어 풍경이 쓸쓸하다.  
 千秋華渭追陳跡 천추의 華渭 자취를 더듬어 보며  
 捲釣歸來把短犁 낚시 걸고 돌아와 쟁기를 잡는다네.<sup>11)</sup>

위의 시는 <稻花>이다. 이 시에서는 전원을 표현하는 시어로 ‘농가’와 ‘원림’이 사용되었다. 이 두 용어는 전원의 두 가지 기능을 충족시키는 뜻으로 쓰였다. 먼저 농가의 경우는 논두렁 가득 6월의 벼꽃이 피어있는 농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유월의 벼꽃이 가득한 논두렁은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농사는 나라와 백성의 항산을 지켜주는 근간이었다. 경희가 살았던 시대에 이미 상공업에 그 위상을 빼앗긴 농사는 위의 시에서만큼은 전혀 낮은 것이 아닌 것이 되어 항산이 지켜지는 소박하지만 풍족하고 아름다운 전원의 풍경을 그려낼 수 있는 전제가 된다. 그리고 이것이 전제된 원림은 거문고를 통기며 매미와 피꼬리 소리를 즐기는 한적의 미를 담아내고 있는 공간이 된다.

농가의 일을 상징하는 논두렁 가득한 벼꽃에서 시작하여 원림에서 매미와 피꼬리 소리를 즐기던 이 시의 시선은 하늘과 운하의 골짜기 풍경으로 이어진다. 그러다 화자는 자신을 알아줄 수 있는 세상을 기다리며 은거했던 伊尹과 呂尙의 고사와 함께 낚시와 쟁기를 잡는 농가의 일을 하는 행위

11) 『景晦集』, 아세아문화사, 1987. 이후의 시들도 모두 1987년에 간행된 영인본 『景晦集』에서 인용된 것으로 이하 시들에는 각주를 생략한다. 또한 시의 번역은 이백순, 최한선 번역의 『국역 경희집』을 주로 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다. 이하의 시들의 번역도 동일하다.

로 마무리 된다. 여기서 농가와 원림은 자신의 생활을 위한 낚시질과 쟁기질이 伊尹과 呂尙을 떠올리는 이상적인 노동이 되면서도 그윽한 곳에 앉아 거문고를 튕기며 피꼬리와 매미 소리를 듣는 소박하지만 풍요로운 한적의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런 공간에 대한 인식은 산들 바람이 부는 따뜻한 어느 저물녘 전원에서 박주를 즐기는<sup>12)</sup> 한적하면서도 소박한 풍요로움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농가’가 사용된 <景慕堂金安植曰珉來訪贈之以詩>에서도 볼 수 있다.

野望正好看晴痕 들을 보니 비 개인 흔적이 보기 좋은데  
 老子愁風尙閉門 늙은이는 바람이 싫어 되레 문을 닫는다.  
 澗水聲中來客杖 시냇물 소리 속에 객의 지팡이 소리 오고  
 桃花影裡見山村 복사꽃 그림자 속으로 산마을이 보인다.  
 群芳藹藹皆生意 여러 꽃 무성하여 모두 생기 넘치고  
 衆鳥嘯嘯不辨言 못 새들 우는데 알 수 없는 말들일세.  
 歲去無情惟白髮 세월이 가니 무정한 게 오직 백발이니  
 明窗檢字拭眼昏 밝은 창 앞에 글씨 보며 어둔 눈 닦는다.

위의 시는 <雨晴>이다. 늦봄 비개인 후 멀끔한 들판과 고즈넉한 산골 마을이 보이는 고요한 집에서 객이 오는 지팡이 소리를 들으며 세월의 무상에 대해 토로한 이 시에서는 전원을 표현하는 시어로 ‘산촌’이 쓰였는데, 비 개인 후 고요한 들판과 산골 마을 그리고 꽃과 새들이 가득한 늦봄의 전원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 산촌은 내가 사는 곳에서 보이는 고즈넉한 비 개인 후의 전원 모습을 표현하는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이 시에서는 고요히 은거하면서 비 개인 후의 한적하면서도 쓸쓸한 전원미를 읽을 수 있는데,

12) <景慕堂金安植曰珉來訪贈之以詩>, “暖日庭心苔正綠 微風簷角鶯斜飛 農家薄酒猶堪飲 歸家無妨趁夕暉 ”

이렇게 한적한 전원미를 나타내는 풍경으로 쓰인 전원을 인식한 시로는 이 맑은 강을 안고 있어 뽕과 삼을 집 가에 심어 놓고, 밥 짓는 연기 속에서 노을을 바라보이는 ‘산촌’을 그린<sup>13)</sup> <峽村>이나, 단비를 맞으며 벼 이랑에서 풀을 메고, 햇살 받으며 채소밭에 물을 주고, 인적 없어 고기 가득한 들 나무터와 숲 속 가득한 꽃과 나비를 그리며, 한적한 산골의 ‘초당’에서의 전원생활의 재미를 말이 더 길어질까 말하지 않겠다<sup>14)</sup>는 <寄題瑞應堂代人作>의 열 네 번 째 수 등이 있다.

茱花淨盡榴花開 나물꽃 다 지고 석류꽃이 피니  
 積雨滄濛長碧苔 장맛비 침침한 곳 푸른 이끼 자란다.  
 多病每愁經業廢 병이 많으니 글공부가 폐해져 걱정이고  
 深山長阻故人來 산이 깊으니 친구도 찾아오지 못한다.  
 挾書童子擎茶椀 책 들고 온 동자는 차잔을 받들고  
 種稻隣家餉酒盃 벼를 심은 이웃집은 술을 보내왔다.  
 龔啞定知非惡事 귀먹고 병어리 됴이 나쁜 것이 아니니  
 故臨澗水作離臺 시냇물의 위에다 離臺를 만들어 본다네.

위의 시는 <山家書事>이다. 여기에서는 제목에서 ‘산가’가 시적 대상으로 쓰였다. 산가는 지금 화자가 사는 공간으로,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서술한 시이다. 나물 꽃은 지고 석류꽃이 피기 시작한 초여름에 깊은 산속에 자리한 화자의 집은 병이 들어 글공부도 폐하여 지고, 담소를 나눌 벗도 찾아오기 힘든 것이 걱정인 공간이다. 그렇지만, 책을 들고 와 차잔을

13) <峽村>, “峽村一面抱清川 五畝桑麻種宅邊 三時烟火通人境 滿目雲霞護洞天 秋水芙蓉誰肯愛 春風桃李世爭賢 定知學業爲深崇 長夜乾坤近百年 ”

14) <寄題瑞應堂代人作>, “白石清溪傍草堂 濯纓更好濯心康 彈琴竹裏留明月 酌酒花間對夕陽 山色捲雲還靜寂 泉聲經雨遠飛揚 槐安一夢誰能覺 勝得閒中歲月長 ”

받든 동자를 곁에 두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벼를 심은 이웃집에서 술도 보내 왔으니, 깊은 산골 병으로 귀먹고 병어리 된 것이 나쁜 일도 아니게 된다. 깊은 산과 병든 몸은 오히려 세속의 걱정거리를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되어 자연스레 속세와 멀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서 ‘산가’는 은자의 생활을 담은 한적한 전원의 모습을 담은 공간으로 쓰였다. 이런 모습은 물 가까운 곳에 모친을 모시고 살며 세속에 유합함을 지렁이와 뱀새에 비유한<sup>15)</sup> <述懷>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경희 한시에서 전원은 풍요로운 농가의 모습과 함께, 적료하면서도 고즈넉한 은자의 생활상이 담겨 있는 전원적인 흥취를 지닌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이상적 은거가 시도되는 공간

경희 한시에는 은거가 시의 주된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앞서 봤듯이 경희는 吾南 金漢燮와 重菴 金平默과 의 제자로 스승을 따라 과업을 포기하고 향촌에 은거하면서 유자의 도리를 지키고자 하였다. 입신을 포기한 유자의 차선은 바로 은거이다. 전원은 대체로 그런 은거의 장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 문학작품에서 다양하게 은거의 공간, 탈속의 공간, 그윽한 유자의 흥취를 유지하기 위한 공간으로 그려져 왔다. 이상적인 은거가 실현되는 공간으로서 전원은 때문에 관념적인 이상향의 상징으로 문학 작품에서 향유되기도 한다.

경희의 시에서도 각 고을의 높은 객들이 모이는 누각은 술숯이 가려주며, 용렬한 무리가 옛불까 포구에 낀 안개도 걷히지 않고 보호해준다거나,<sup>16)</sup> 만산 초목이 가려준 사립문 안에서 한평생 시 짓고 예를 지키는 것으

15) <述懷>, “水近林亭五月寒 兀然端坐倚空欄 鈍根易被滯辭惑 俗客寧知古調彈 蚯蚓堪詫黃壤樂 鷓鴣尚得一枝安 顧余迂拙何爲者 仰諦慈顏涕淚瀾”

로 죽하니 티끌사이에 나가 나의 흰 옷을 물들이지 않겠다<sup>17)</sup>고 다짐을 하기도 하고 집을 지을 곳을 정함에 있어 세상 먼지가 없는 무릉을 기준으로 삼아 영욕에 상관하지 않은 몸으로 종신토록 받을 갈며 노친을 봉양하겠다고<sup>18)</sup> 결심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 불안한 시국의 정세를 검은 구름과 동풍에 비유하며 찾아온 객에게 산 밖의 일을 말하지 말라 당부하며 숨은 사람으로 외부의 일을 끊고자<sup>19)</sup>하기도 한다. 어지러운 시국에 스승의 뜻을 따라 과업을 포기하고, 전원에서 삶을 영위해야 했던 경희의 삶을 보면 그의 시에 은거의 정서가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雲林深處闢田園 雲林 깊은 곳에 전원을 개간하니  
不厭溪聲日夜喧 시내소리 밤낮으로 시끄러워도 싫지 않네.  
呂尙潔身棲渭曲 呂尙은 渭의 가에서 몸을 깨끗이 지키고  
龐公携室入山村 龐公은 가족을 데리고 산촌으로 들어갔다지.  
百年肝膽頻看劍 평생 마음속으론 자주 검을 보았으니  
四海風塵獨舉樽 사해의 풍진 속에 혼자 술잔을 든다네.  
傾否濟屯誰得擬 막힌 운수를 누가 트이게 하리요  
江山自是舊乾坤 강산은 그대로 옛날의 乾坤인데.

위의 시는 <自叙>로 전원 공간을 표현한 시어는 ‘전원’이다. 위의 시에

- 
- 16) <次永湖齋士相見禮韻>, “松林深處敞高樓 東箭南金盡一州 尊客折旋擎尾尾 主人揖讓上階頭 醇風遠遡唐虞日 正氣昭回百六秋 却恐庸徒來暗覷 浦雲港霧未全收”  
17) <峽村幽居>, “世難深知故舊稀 萬山草樹掩柴扉 風吹瓜町黃花發 雨過松溪綠水肥 少婦提鋤朝日出 稚兒抱犢夕陽歸 百年詩禮生涯足 不向塵間染素衣”  
18) <卜居>, “聞道武陵絕世塵 數家煙火避秦人 三清日月逍遙地 萬樹桃花寂寞濱 一室圖書聊得趣 百年榮辱不關身 好風若借漁舟便 終歲耕田養老親”  
19) <齋夕閒坐>, “道康城上黑雲垂 暮東風刮地吹 原野插秧初出水 鶉鳩喚雨亦隨時 焚香遙夜閒調鶴 檢史寒燈屢引匙 座客莫言山外事 幽人從此斷聞知”

서 전원은 구름과 숲이 깊은 곳에 삶의 터전으로 개간한 공간으로 제나라의 呂尙과 후한 말의 재야인사인 龐德公의 고사가 사용되어 은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맞서지 못한 화자의 유일한 공간은 바로 구름과 숲 깊은 곳에 개간한 전원이다. 이런 모습은 강호의 비분강개한 무리들은 평안하게 지내기 어려우니 결국 전원이나 생애를 붙여보겠다<sup>20)</sup>고 하여 전원을 풍진 세속을 피한 공간으로 그려낸 <次朴慶叔炳善靜齋韻>에서도 보인다.

그런데 경희가 살았던 시기는 단순히 전원엔 은거한다고 해서 세상의 먼지를 막을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다. 경희가 살았던 한말은 단순히 정세가 혼란한 정도가 아니라, 열강들의 패권 다툼 끝에 일제에 의해 나라를 잃고, 근대가 도래하여 유학의 가치가 전부 뒤집어진 상태였다. 서학의 난무, 열강들의 패권다툼, 일본에 의한 국권피탈과 같은 현실 문제는 단순히 산촌, 또는 전원으로 숨어 산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더욱 한말 위정척사파의 중요 인물인 중앙의 제자였던 경희에게는 이런 현실은 외면하고자 해서 외면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은거의 중에도 가만히 머물러만 있을 수 없는 경희의 심정은 초목이 깊숙해 잠시 멈춰 있는 공간에서도 결국 사방에 정처 할 곳이 없음을 토로하고<sup>21)</sup>, 산에 나물을 먹으며 아무도 원망하지 않지만, 시국을 점쳐보며 긴 밤과 만 리 구름에 빠진 세상에 무릉도원이 이제 없어짐을 탄식하기도 하며<sup>22)</sup>, 외세의 무리들을 도깨비 떼에 비유하면서 귀머거리 시늉을 하

20) <次朴慶叔炳善靜齋韻>, “江湖劔筑苦難平 且向田園寄此生”

21) <自敘>, “本心非欲久淹留 只爲此間草樹幽 北徙南遷三種菊 春來秋去四開榴 匏花豔豔簷頭上 荷葉田田水面浮 四顧一身無定處 區區衣食費營謀”

22) <撥悶>, “山頭堅坐茹山菜 不向天人生怨悔 已把詩書作稻粱 更教翰墨爲鋤耒 百年長夜占時形 萬里浮雲看世態 匪鮪匪鱸古所嘆 武陵花竹今安在”

거니<sup>23)</sup>, 하늘을 원망하며 귀먹음을 굳이 약을 써 고칠 필요가 있는가<sup>24)</sup> 하며 자조하기도 하는 등으로 시 곳곳에 나타난다. 이런 점은 은거의 공간으로 전원을 표현하는 시어를 사용한 경희의 한시에서도 보인다. 경희에게 있어 전원은 은거가 시도되는 공간이긴 하지만, 완성되는 혹은 이루어지는 공간은 아니었던 것이다.

金陵地盡有山村 金陵의 땅이 다한 곳 산촌이 있으니  
 修竹喬松處士門 긴 대 높은 솔 속에 처사의 대문이 있다.  
 屈子風騷光日月 窟子の 風騷는 일월처럼 빛나고  
 魯生談笑轉乾坤 魯生の 담소는 천지를 뒤 바꾼다.  
 千秋偉蹟長抆涕 천추의 위대한 자취에 눈물을 닦고  
 四海腥塵獨閉園 사해의 비린 먼지 홀로 정원을 닫는다.  
 蟻穴榮枯渾不管 개미구멍의 번영과 쇠락 전혀 상관치 않으니  
 寄言俗客莫相煩 속객들은 번거롭게 굴지 말게나.

위의 시는 <山村>으로 전원을 표현하는 시어로 ‘산촌’이 사용되었다. 금릉은 경희가 평생을 살았던 강진의 이칭이다. 여기서 산촌은 긴 대 높은 솔숲이 있는 처사의 대문이 있는 곳, 속세를 버리고 절개를 지켰던 屈原과 魯仲連의 정신을 간직하며 천추의 자취에 눈물을 닦는 화자의 공간이다. 그러나 이 공간의 긴 대와 높은 솔숲은 사해의 비린 먼지를 막아주지 못한다. 결국 은자는 비린 먼지를 막기 위해 홀로 정원 문을 닫는 행위를 해야 한다. 개미구멍 같은 속세의 번영과 쇠락은 상관치 않으나, 결국 속세의

23) <夏夜拈韻>, “拂雲松柏翠童童 分付幽人氣味同 大澤龍吟傾驟雨 深山虎嘯起寒風 撫心東魯衣冠裏 舉目西洋魑魅中 瞻得清溪長聒耳 不妨林臥故粧聾”

24) <清泉>, “愁看時象入昏濛 中夜悲歌怨上穹 四海滔滔魑魅窟 十年蹢蹢桂雲叢 清泉鳴枕全身冷 碧嶂當門一逕通 天霽日明得見否 不須藥物苦治聾”

비린 먼지는 정원을 파고들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다. 이 시에서 산촌은 세상의 어지러움을 피해 강진에서도 땅이 다한 곳에 들어가 긴 대와 높은 술쉴이 있는 곳이지만, 비린 먼지를 막지는 못한다.

山村雨後水聲多 산촌에 비가 온 뒤 물소리가 많아  
萬斛塵埃盡洗磨 만 섬이나 되는 먼지 모조리 씻어냈다.  
老子出門長嘆息 늙은이 문을 나서 길게 탄식하노니  
腥氛天地可如何 천지에 가득 찬 비린내를 어찌 하리오.

위의 시는 <雨後>로 역시 ‘산촌’이 전원을 표현한 시어로 사용되었다. 앞서 본 <山村>과 그 심상이 매우 비슷하다. 깊은 산촌에 비까지 와 만 섬이나 되는 먼지가 모조리 씻겨 나갔지만, 문을 나서니 여전히 천지에 비린내가 가득하다. 결국 혼란스러운 세상에 맞서지 못한 채 깊은 곳에 전원을 개간해 삶을 의탁하려 했던, 전원에서의 은거에 대한 열망은 완성되지 못한 채 시도에 그친 것이다. 이렇게 은거가 시도는 되지만, 완성되지 못하는 모습은 굳게 닫힌 초가집에서 흙과 나무와 같은 물골로 시를 짓고 바람을 쐬던 삶을 사는 중에도 요약스러운 세상의 기운을 느껴 오랫동안 천지를 헤아려보려는<sup>25)</sup> ‘초당’을 시어로 한 <草堂>에서도 볼 수 있고 광풍이 몰아오는 비에 마음이 흔들려 해진 숲속 정자를 바라보는 것을 그만 두었다<sup>26)</sup>고 고백한 ‘임정’을 시어로 쓴 <次杜子美登樓韻>, 그리고 ‘산가’를 시어로 하여 저문 봄날 한가로운 산가에도 사방에 먼지만 끝도 없이 가득 함<sup>27)</sup>을 탄식한 <感興> 등에서도 볼 수 있다.

25) <草堂>, “草堂門掩碧山東 形貌依然土木同 石檻題詩拈老葛 松陰散髮納涼風 百年故舊知心少 一代繁華過眼空 四顧氛祲終底狀 乾坤長入揣摩中”

26) <次杜子美登樓韻>, “狂風吹雨攪人心 盡日林亭罷眺臨”

27) <感興>, “花開花落已經春 從此山家始覺貧 萬卷詩書誰作主 百年劔筑喜邀賓 親

往歲携家入山村 지난해에 가족을 이끌고 산촌에 들어왔는데  
 峽口橡栗鬱蒼翠 작은 계곡에 상수리 밤이 울창하였지.  
 柴門無人晝常閉 사립문은 사람이 없어 낮에도 늘 닫아 두고  
 高臥日日作晝睡 높이 누워 날마다 낮잠만 잤다네.  
 溪雲山月共漉盟 시내, 구름, 산, 달과 함께 맹세를 했고  
 琴書蕭灑絕俗累 거문고와 책이 깨끗하여 얽매임 없었네.  
 <…>

安得義勇如岳公 어떻게 義勇이 岳公 같은 이가 있어서  
 唾手風塵穢醜類 풍진 세상 손에 침 뱉고 악의 무리 섬멸할까?  
 不然深入桃源裏 그렇지 못하면 깊이 桃源에나 들어가서  
 局外冷煖都不記 세상 밖의 冷煖을 도무지 몰랐으면  
 不然白日生羽翰 그러지도 못하면 백일에 날개가 돌아  
 遨遊物表能久視 세상 밖에서 즐기며 오래 살았으면

위의 시는 <石榴花下與客對酌以夕陽三四家分韻得四字>로 역시 ‘산촌’을 전원을 표현한 시어로 사용한 시이다. 위 시는 가족들을 데리고 산촌에 들어가 은거하며 살다 석류꽃이 핀 계절에 찾아온 손님과 그 아래서 술을 마시며 심경을 술회한 시이다. 앞부분에서는 작은 계곡 상수리와 밤 나무가 울창한 곳에 자리를 잡고 찾는 사람이 없는 적막하고 깊은 산골의 고즈넉한 삶을 그린다. 높이 누워 낮잠만 자며 자연물과 함께 청고한 삶을 살겠다고 맹세하며 너저분한 세속과의 얽매임이 없는 모습은 경희가 바라던 이상적인 은거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고즈넉한 이상적 은거의 행위는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풍진 세상 무도한 악의 무리에 대한 분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은거했지만 거대한 속세의 악, 현실의 혼란스러움은 차마 외면할 수 없

는 분을 화자는 느낀다. 그렇지만 화자는 이 분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악을 섬멸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결국 다시 은거를 선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깊은 산골에 있음에도 더 세속과 멀어지기를 원한다. 여기서 더 깊이 숨어 세상일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또 다른 이상적인 공간[桃源]을 찾고, 그것도 안 된다면 날개가 돌아 멀리 날아가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버리고 싶다는 토로를 한다. 이는 어디를 가도 혼란스러운 세상의 비린 먼지, 비린내는 피할 수 없다는 절망감일 것이다.

경희는 혼란스러운 세상에 과업을 포기하고 전원엔 은거하는 선비의 차선을 선택한다. 그러나 차선인 은거는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한말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깊은 산골을 찾아 전원을 개간하고, 깊은 산속까지 찾아든 비린 먼지를 막기 위해 정원의 문을 닫아도, 큰 비가 내려 먼지를 다 씻어도 비린내와 먼지는 가시지 않는다. 경희에게 있어 전원은 속세를 벗어나 몸을 의탁하기 위한 은거의 공간이지만, 이상적인 은거생활이 완성될 수는 없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태도는 실제로 국권피탈 이후 무장독립투쟁의 필요성을 느끼고, 동문인 懿菴 柳鱗錫을 설득하여 항일운동을 하게하고, 본인 또한 1915년 독립운동과 후진양성을 위해 간도로 떠났다가 몇 해 만에 병으로 환향하게 된 경희의 삶과도 연결된다.

### 3. 수고로움과 도리가 공존하는 삶의 공간

경희는 한말 혼란스러운 정세로 스승을 따라 스스로 과업을 포기하고, 향촌에 머물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이런 결정은 앞서 보았다시피 경희 한시에서 은거의 형태로 드러난다. 그렇지만, 입신을 통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선비에게 전원은 단순히 속세의 먼지를 피할 수 있는 관념적인 이상향만으로 다가가기 어렵다. 특히 경희처럼 가난한 선비에게는 더 말할

것이 없었다. 또한 앞서 은거에 관련한 시에서 보았듯 경희의 시에서 속세의 먼지는 단지 개인이 회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는 문제의 것이 아니었다. 이때 전원은 은거가 시도되지만, 지속되지는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업의 장, 즉 경험적인 노동의 공간으로 그려지게 된다. 혼란스러운 세상의 유자로서 수고로운 노동을 통해 삶을 이어가는 백성들의 삶을 관찰하는 배경이 아닌, 자신이 직접 수고로운 노동을 경험해야만 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경희의 한시에서도 전원은 이런 경험적인 노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큰 비에 거둬들인 보리에 싹이 나버리고 모를 심어놓은 논두렁이 넘쳐 일 년의 대책과 까닭 없는 세금을 걱정하기도 하고,<sup>28)</sup> 아내가 심어놓은 파를 보며 아내의 정성과 수고로움을 말하거나,<sup>29)</sup> 겨울에 심은 마늘에 거름 주는 등의 노동을 서술하며 좋은 비를 기원하며,<sup>30)</sup> 잦은 비에 보리갈이에 힘을 실어줄 인부와 소를 구하는 일에 대해 걱정을 하는<sup>31)</sup> 등 전원을 배경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노동을 그려낸 시들이 이에 해당 된다. 전원 공간을 표현한 시어를 사용한 시에서도 역시 이런 모습이 보인다.

특이할 만 한 점은 전원을 이렇게 인식한 시들을 보면 유독 ‘전가’를 시어로 삼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농사가 이루어지는 전답과 실제 생활공간인 집을 합한 단어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전가는 전원보다는 좀 더 범위가 작아 구체적이면서도 농가나 원림보다는 전답의

28) <霖雨嘆>, “場圃麥生苗 田野禾漑深 小水滄溝洫 大水齧畦陸 卒歲已無策 白稅更何能”

29) <蔥圃>, “蔥圃一區在後園 蔥蔥秀色正堪飡 不困壅糞寧能此 定識室人精力存”

30) <蒜圃>, “季冬栽蒜仲春生 壅糞加澆亦不輕 所望間間來好雨 稚根嫩葉日滋榮”

31) <頻雨>, “頻雨車耕時已晚 借人矧又借牛難 定知傾覆天心在 計日空然待土乾”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생활공간과 노동의 공간을 포괄한다. 또 한편으로는 산촌이나 산가보다는 생활에 더 밀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보인다고 생각된다.

傭奴曉起善食牛 머슴은 새벽에 일어나 소를 잘 먹이고  
 要作耕田第一流 논을 갈기를 제일 잘 하게 하려 한다.  
 下手長馱如御馬 손을 써서 길게 몰기를 말처럼 하고  
 到頭回轆似旋舟 다 가면 돌리기를 배를 돌리듯 한다.  
 疏溝已備塍中斷 물길을 쳐서 제방의 끊어짐을 대비하고  
 隱石須教隴上投 숨은 돌을 모름지기 두렁 위로 던져버리자.  
 生土終期無半點 생흙은 결국 반점도 없게 하여  
 初翻至再更三周 처음 변경, 또 하고, 다시 세 번을 한다.

위의 시는 <依韻和崔瑞珍田家翻耕吟>으로 제목에 ‘전가’가 사용된 경우이다. 이 시는 논밭을 갈아 뒤집는 변경 작업을 대상으로 삼아 구체적인 변경작업을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여기에서 전가는 농사일이 이루어지는 노동의 공간이 된다. 시는 전체적으로 변경작업의 준비와 시작 그리고 작업과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별 다른 감상 없이 마무리를 된다. 사실을 기록하듯이 표현된 구체적인 노동 작업은 화자의 실제 경험에서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화자의 노동에 대한 구체성은 전가로 표현된 전원이 농민의 노동을 단순히 관찰 하는 배경이 아니라, 화자가 실제로 수고로운 노동을 하는 현실 생활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田家五月百事忙 전가 오월은 온갖 일이 바쁘니  
 移秧未了復打麥 모내기도 못 마치고 보리타작 한다네.

去年租重無陳穀 작년에 조세가 비싸 묵은 곡식 없어서  
 打麥正要餉稅役 보리를 타작해 모내기 하는데 밥을 내린다.  
 昔日釀酒酒已熟 엇그제 술을 빚었는데 술이 이미 익었고  
 昨日縣市買魚蛤 어제는 장에서 생선과 조개도 사왔다네 .  
 朝嗷傭奴催隣曲 아침에 머슴 불러 이웃들을 모으고  
 攤麥次第成鱗疊 보리를 차례로 깔고 나니 고기비늘 되었네.  
 半臂短襦青抹額 반 팔뚝 짧은 적삼 푸른 수건 동여매고  
 三五作耦分左右 삼삼오오 짝을 지어 좌우로 나눠준다.  
 空中舞鞭當頭打 공중에서 춤춘 채찍 제 자리를 때리니  
 緩急低昂頻換手 천천히 급히 높게 낮게 자주 손을 바꾼다.  
 彼此相應聲正急 피차가 서로 응해 소리는 급하고  
 打盡一場復一場 한 마당 치고 나서 다시 한 마당을 치는구나.  
 夏日炎炎氣鬱蒸 여름날 더위가 답답하게 찌는 가운데  
 喉中生烟汗成醬 목구멍에선 연기 나고 땀은 간장이 된다네.  
 初見金莖觸手碎 처음에 노란 줄기가 손을 따라 부서지더니  
 終喜場圃散珠玉 나중에는 온 마당에 주옥이 깔린다.  
 堆金積玉千萬萬 금을 쟁기고 옥을 쌓아 천만 개나 되니  
 不羨封侯列鼎食 술을 벌여놓고 먹는 封侯가 부럽지 않다.  
 晚來携樽樹陰下 늦은 날 나무그늘로 술동이 가져와  
 白酒翠鮮相勸酬 막걸리와 고기를 서로 권한다.  
 一醉醺然枕樹根 한바탕 취함에 나무뿌리를 베고 누우면  
 頭上清風冷颼颼 머리 위로 서늘한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주네.

위의 시는 <打麥行>으로 3수 중 첫 번째 수이다. 역시 ‘전가’가 시어로 사용되었는데, 이 시에서도 전가는 보리타작으로 하는 화자의 실제 노동이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공간이다. <打麥行> 중 위의 시는 변경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했던 <依韻和崔瑞珍田家翻耕吟>처럼 보리타작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보리타작을 하려는 이유와 준비, 그리고

생동감 있는 보리타작의 노동 과정, 노동이 끝난 뒤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음식과 휴식까지 소박하지만 풍요로운 흥취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 시 또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노동 묘사를 통해 전원에서의 현실적인 노동의 수고로움과 그 수고로움으로 인한 풍요와 노동이 끝나고 난 뒤의 흥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비싼 조세 때문에 모내기 때 먹을 밥을 마련하기 위해 굳이 바쁜 5월에 보리타작을 하려한다는 언급으로 전원생활의 어려움과 현실 문제까지 함께 읽어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시에서 ‘전가’로 표현된 전원은 생생한 노동의 수고로움과 이로 인한 풍요, 함께 하는 노동의 즐거움과 함께 현실 문제를 지닌 실제적인 삶의 공간이 된다. ‘전가를 비가 와 봄같이를 멈춰야 함을 해석해 하는<sup>32)</sup> 노동의 공간을 그린 <欲雨還風繼以大風>에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

生長田家矧不力 전가서 나고 자랐으니 하물며 힘쓰지 않으며  
 一身勞苦何足計 일신의 노고를 어찌 헤아릴 수 있으리.  
 徹飯就田續斷痕 밥을 먹고 논으로 들어가 일을 계속하며  
 叮囑兒女善驅鷄 자녀더러 닭을 잘 보라 타이른다.  
 禾苗成行淨兀兀 모는 줄을 이루어 질서정연하고  
 時見長蛇逐青蛙 때로 긴 뱀이 푸른 개구리를 쫓는다.  
 今日上坪已斷手 오늘은 위의 논을 끝냈으니  
 明日下坪更料理 내일은 아래 논을 다스려야지.  
 日暮揮鋤出隴頭 날이 저물어 호미를 들고 논둑을 나오는데  
 腰屈不能平立視 굽은 허리 바로 세워 보기도 힘들다네.  
 步步隨月歸衝門 걷고 걸어 달빛 따라 사립문에 이르며  
 老母勞苦垂涕憐 노모가 고생했다고 눈물을 흘리시네.

32) <欲雨還風繼以大風>, “行路掛冠愁晝寢 田家斂手惜春耕”

命妻入廚具夕飧 아내에게 부엌에 들어가 저녁밥을 짓게 하고  
談笑欣然繞膝前 혼연히 담소하며 무릎 대고 둘러앉았는데.

위의 시는 <耘草行>으로 역시 ‘전가’를 사용하여 전원공간으로 표현하였다. 위 시는 김을 매는 일을 주제로 한 시로 여기서 사용된 ‘전가’ 역시 현실적인 노동의 공간으로 그려진다. 생략된 부분에도 “새벽에 호미 들고 문을 나서니 길녘 이슬에 흠뻑 옷이 젖고, 하늘에 구름이 없이 태양 뜨거우니, 땅 달구어져 사방 들이 무덥다”<sup>33)</sup>, “흙먼지 손에 들어가니 손 무겁고, 벼 앞에 눈이 찢리니 눈앞이 빨갱다”<sup>34)</sup> 등으로 표현하여 새벽부터 한낮까지 김을 매는 화자의 경험적 노동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런 경험적인 노동행위에 대한 표현은 역시 전가를 실제 노동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인용된 이 시의 뒷부분을 보면 전원에서의 노동에 대한 경희의 태도를 알 수 있다. 내 한 몸 노고를 헤아릴 것 없이 전가에서 나고 자랐다면 당연히 힘써 일을 해야 한다는 표현은 전가에서의 노동은 전가의 삶을 지속하기 위한 당연한 도리, 즉 노동의 당위성을 읽어낼 수 있다. 전가의 노동이 당연한 도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노모를 봉양할 수 있고, 한 식구가 먹을 수 있는 저녁밥을 지어먹으며 무릎을 대고 둘러앉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희는 농부와 다를 바 없는 수고로운 노동의 경험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를 부양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꾸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도리를 부여한다. 즉 전원에서의 노동은 수고롭지만, 당연히 해야 하는 도리이며, 이때 노동이 행해지는 공간인 전원은 그런 수고로움과 도리가 공존하는 삶의 장이 되는 것이다.

33) <耘草行>, “侵晨荷鋤出門去 行露厭浥沾人衣 白日燄燄天無雲 四野鬱蒸地熏灼”

34) <耘草行>, “塵土入爪手更重 禾葉觸眼電光赤”

전원에서 노동의 수고로움과 당위성에 대한 언급은 경희의 한시 곳곳에서 보인다. 뜻도 모른 채 책만 보느라 노동을 하지 않았더니 남새밭에 나물이 없어 부모님 봉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 어지러운 핑계로 책도 게을리 하니 사람으로 태어나 제대로 모양새도 갖추지 못함을 한탄하거나,<sup>35)</sup> 빈천하면 마땅히 농사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몸이 아위어 제대로 하지 못하니 농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신세에 대해 토로하기도 하며,<sup>36)</sup> 가난한 선비가 부모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면 몸소 농사를 지어 봉양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를 말하면서 당나라의 주경야독하며 모친을 모시며 은거하였던 董邵南의 고사를 인용하기도 하면서<sup>37)</sup> 전원의 노동에 대한 당위, 도리에 대해 언급한다.

有屋可以庇風雨 집이 있어 풍우를 가릴 만하고  
 有田可以供粢盛 논이 있어 제사를 받들 만 하도다.  
 有書可以教子孫 책이 있어 자손을 가르칠 수 있고  
 有酒可以怡性情 술이 있어 심성을 기쁘게 하구나.  
 慎勿向萊浦作米商 삼가 萊浦에 가서 쌀장사 하지 말고  
 慎勿向洋醜效奇技 삼가 서양 놈의 공교한 재주 배우지 말라.  
 慎勿入齒漆叢裏學異語 삼가 漆齒에 들어가 이상한 말 배우지 말고  
 慎勿向天主堂中拜邪鬼 삼가 천주당에 들어가 邪鬼에게 절하지 말라.  
 不義而富貴不若守義而貧賤 의롭지 않은 부귀는 의를 지키며 빈천함만 못  
 하니

35) <食無蔬>, “佔畢年來久輟鉏 草生白屋圃無蔬 親衰愁盡三時飯 世難慵開萬卷書 董永格天逢織女 姜詩汲水得遊魚 嗟余人子終何狀 况復一身無定居”

36) <稼穡>, “屏跡窮山驗世情 芰荷東倒復西傾 鯨鯢弄日纒滄海 騏驥嘶風望遠程 貧賤正須資稼穡 清癯安得耐耘耕 天生男子非無意 一夜悲笳動海城”

37) <贈金生章善>, “貧儒養老合躬耕 粗價慈烏反哺情 年念前功眞可惜 暮書昔有董家生”

貧賤未必至死亡 빈천하다고 꼭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不義而生不若守義而死 의롭지 않게 사는 것보다는 의를 지키고 죽는 것  
만 못하니

死亡猶得全天常 죽어도 오히려 천상을 온전히 한 것이다.

請君休道人間事 청컨대 그대는 인간의 일을 말하지 말라.

爲君說與田家樂 그대에게 전가의 즐거움을 말해주리라.

君子有定志 군자는 정해진 뜻이 있어야 하고

野人有恒業 野人은 정해진 업이 있어야 한다.

日出耕田南山陽 해가 뜨면 남산의 앞에서 논을 갈고

日入群動共休息 해가 지면 모든 동물과 함께 쉬어야지.

<…>

平生不踐非禮地 평생에 비례(非禮)의 땅은 밟지를 앓고

平生不道非禮言 평생에 비례의 말은 하지도 앓는다.

生爲禮義民 살아서는 예의(禮義)의 백성이 되고

死作禮義魂 죽어서는 예의의 혼이 되련다.

顏生居陋巷 顏生도 陋巷에서 살았고

孟氏知天命 맹자도 천명을 알았다.

素位自得知 처지에 따라 행할 줄을 알면

應爾留與千古作面鏡 응당 너를 천고의 거울 되게 해 주리니

豈有膏火煎心腸 어찌 창자에 화가 일어나랴

時騫騰雖可慕 때를 타서 날뵈도 사모할 만하지만

畢竟乘除誰短長 필경 오르내림이니 어느 편이 낮고 못할까

위의 시는 <田家樂>으로 역시 ‘전가’가 전원을 표현한 시어로 사용되었다. 이 시는 전가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를 서술한 시이다. 이때 전가는 농사보다는 포구에 나가 쌀을 팔고, 서양의 공교로운 재주를 배우며, 유학이 쇠하여져서 왜놈의 언어를 배우고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에 풍우를 가리고, 제사를 받들며 하늘이 내려준 정해진 업과

뜻을 받들어 지켜낼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이는 노동의 수고로움과 그 도리에 대해 언급했던 앞의 시들과 상통한다. 또한 입신이 좌절되어 전원에서의 삶을 선택한 선비가 농부와 다름없는 수고로운 노동을 해내야 하는 이유를 읽을 수 있다.

군자의 뜻이든 야인의 업이든 전원에서의 삶은 해가 뜨면 눈을 갈고, 해가 지면 쉬는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노동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이런 전원에서의 삶은 안자와 맹자처럼 예와 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고 이를 통해 장사나, 서양의 재주, 왜놈의 언어, 천주교와 같은 온갖 비례(非禮)가 되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전원에서의 삶은 입신보다 더 영예로운 천고토록 다른 사람들의 거울[面鏡]이 되게 한다. 이렇게 경희에게 있어 전원은 인간으로, 또 선비로 태어나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들을 지켜내야 하는 경험적 노동의 공간으로, 수고로움과 그 수고로움으로 인해 도리가 지켜지는 삶의 장이었다.

경희는 전원을 노동의 수고로움과 도리가 공존하는 삶의 공간으로 인식한데서 한걸음 나아가 나라를 지탱하는 근본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인다. ‘산촌’을 전원을 표현한 시어로 쓴 <夜聞砧杵聲書感>에서 다듬이 소리가 곳곳에 이어진다면 구렁에 굶어죽는 혼이 없을 것이라<sup>38)</sup>고 하기도 하고, 다른 한시에서도 인간의 근본인 농사가 상공보다 낮아진 이 말세를 한탄하거나<sup>39)</sup> 전원을 택한 선비가 선비다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책읽기가 이웃집 부인의 베 짜는 일과 동급이 되어 무엇이 더 덜하고 더할 것이 있는가 자문하는<sup>40)</sup> 등의 모습을 보인다. 이는 모두 경희가 실제로 전원에서의 노

38) <夜聞砧杵聲書感> “寂寂寥寥夜色昏 誰家砧杵動山村 但令在在相連續 溝壑應無餓死魂”

39) <農商吟>, “大本人間卽是農 農民誰敢下商工 是知末世滋奸僞 劍戟相尋血色濃”

40) <聞隣家織布聲>, “萬化盡從積累得 不堪辛苦定難成 讀書終日猶端坐 織婦工夫

동의 수고로움을 경험했고, 이런 경험을 통해 이 수고로운 전원의 노동을 인간답게, 자식답게, 선비답게 살아내는 도리로 여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 IV. 맺음말

한시에 있어서 전원은 자연 안에 인간이 순응하며 사는 공간을 기본으로 작자의 상황이나 심경에 따라 한적하고 아름다운 전원적 흥취유발의 공간으로, 혹은 은거의 공간으로, 또는 그곳에서 행하고 관찰되는 노동의 공간 등으로 형상화된다. 이런 형상화는 작자의 상황과 심경에 따른 것이니 만큼 작자가 처한 시대적, 사회적, 개인적 상황들로 인해 미묘하게 변주되어 다채롭게 나타난다. 경희 김영근 또한 한말과 일제강점기라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위정척사파의 학자로, 입신을 포기하고 전원을 선택해야 했던 가난한 선비로, 우국충정을 가슴에 품고 무장독립투쟁을 꿈꾸었으나 결국 좌절된 인사로의 면모가 1,000여 편 되는 그의 한시에 다채롭게 드러난다. 특히 평생을 전원에서 가난한 선비로 살아가야 했던 까닭에 전원이 배경이 되는 한시가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본고는 이에 주목하여 경희 한시에서 나타나는 전원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한시 전반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본고에서 1,000편 가량 되는 한시를 모두 보는 것은 무리였다. 이에 이는 차후 과제로 남겨두고 우선 전원을 표현한 시어를 사용한 한시를 통해 그 단면을 엿보고자 했다. 이에 따라 풍요로운 농가의 모습과 함께 고즈넉한 은자의 생활이 담긴 전원적 흥취를 지닌 공간으로, 속세를 벗어

난 몸을 의탁하기 위해 은거가 시도는 되나 지속되지는 못하는, 이상적 은거가 완성될 수는 없는 공간으로, 경험적 노동의 수고로움과 이로 인해 도리가 지켜지는 삶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고에서는 경회 한시에 보이는 전원인식을 보았지만, 언급했듯이 경회 한시에 전원을 배경으로 한 시들을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전원을 표현한 시어를 사용한 한시를 중심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景晦詩集七絶』과 같이 영인본이 나온 이후에 발굴된 필사본이 있어 경회 한시를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인된 문집의 편제도 일반적인 문집의 형태가 아니어서, 경회의 시문이 어떤 유형으로 얼마나 존재하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쉽지 않아 전반적인 재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런 작업을 선행하지 못하고 논의를 전개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렇지만 기존에 경회 한시를 연구하는 작업이 매우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경회 한시는 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서울이 아닌 향촌에서 살았던 유학자들이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살았으며, 그 삶의 공간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그 자료의 방대함과 다양함은 20세기 한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된다. 때문에 경회 한시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경회 한시에 드러난 전원인식에 대한 연구 또한 심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景晦集』, 아세아문화사, 1987.

이백순, 최한선역, 『국역 景晦集』, 전라남도 강진군, 2010.

- 김주순, 「위진육조시(魏晉六朝詩)의 특색(特色)」, 『국어국문학』85권, 국어국문학회, 1981, pp.269-287.
- 남재철, 「自然詩의 意味와 韓國에서의 展開樣相」 『東方漢文學』33집, 동방어문학회, 2007, pp.103-137.
- 박민영, 「호남유생 景晦 金永根의 화서학과 학통과 항일 시국관」, 『의암학연구』 11호, 의암학회, 2014, pp.185-208.
- 원종례, 「陶淵明과 王·孟의 田園詩 연구」, 『논문집』1, 카톨릭대학교 성심교정, 1995, pp.7-38.
- 최신호, 「景晦의 詩世界 — 斥邪衛正의 側面에서」, 『성심어문논집』7권, 성심어문학회, 1983, pp.1-23.

## 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the Country  
 in Gyeonghoi Kim Yeong geun's(景晦 金永根) Sino Korean Poems  
 –Focusing on the use of poetic words(詩語) depicting the  
 country–

Hwang, Min-Sun

In Sino Korean poems, the country is a space in which people lead a life compliant with nature, and depending on the poet's context and mental attitude, it is configured as a space of idyllic charm, a space of retirement, or a space of labor. Because the image of the country is influenced by the writer's context and mental attitude, it reflects his historical, social, and personal situations. This pattern is also observed in the Sino Korean poems of Gyeonghoi Kim Yeong geun who spent his whole life in Gangjin as a Confucian scholar during the late Yi Dynasty and the period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As a learned man who adhered to Confucian doctrines and rejected Western thoughts and dreamed of military campaigns for independence but was frustrated, Gyeonghoi gave up rising in the world and chose to be a poor scholar in a rural village, and many of over 1000 Sino Korean poems composed by him have his rural life as their background. Taking note of this fact, this study purposed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the country observed in Gyeonghoi's Sino Korean poems. For this purpose, his Sino Korean poems using poetic words for depicting the country were analyzed and discuss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in his poems, the country was perceived as a space of idyllic charm for a recluse's quiet and peaceful life along with well to do farmhouses, a space to which the poet attempted to retire from the mundane life but not successfully, a space in which ideal retirement could not be achieved, and a ground of life with

the toils of experiential labor and the consequent observance of moral duties.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that it did not cover all of Gyeonghoi's Sino-Korean poems with rural background, but was focused on his Sino-Korean poems using poetic words to depict the country. In the current situation that research has been insufficient on Gyeonghoi's Sino-Korean poems, however, this study on the perception of the country in Gyeonghoi's Sino-Korean poems is expected to provide clues to understanding the lives of Confucian scholars at rural villages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how they perceived the spaces of their lives.

Key Word : Sino-Korean poems, Gyeonghoi Kim Yeong-geun, the perception of the country, rural village, late Yi Dynasty, the period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황민선

소속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전자우편 : bonobono59@nate.com

이 논문은 2016년 2월 23일 투고되어  
2016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4월 16일 게재 확정됨.